동문 · 재학생 소식 계간지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HGIT Newsletter

2018년 제17호 여름호(6월)
발행인 조민호
편집장 임재민(35기)
편집위원
33기: 서정민 / 35기: 강승희
36기: 김희재, 박창진, 정유진, 주혜림
37기: 오은영, 최 별

2018년 6월 창간/17호 http://tourism.hanyang.ac.kr/ 2018년 6월 21일 #1

글의 순서

1. 2018년 전기 국관원 소식
2. 평화열차 'DMZ Train'
3. 포스트 유커
4. 교수님과의 대화 – 정 철 교수님
5. 호주 시드니의 숨은 관광지
6. 여름 축제 소개 – 보령머드축제 2018
7. 항공여행 기내 여행 TIP!
8. 잊지 못할 비행 에피소드

1. 2018년 전기 국관원 소식

국내 답사 &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스케치

글/구성 37기 오은영

안녕하세요 새로운 편집부원 37기 오은영입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주제는 2018년 국관원 주요 행사로, 국관원 국내답사와 한국호텔외식관관경영학회 현장을 생생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2018 국관원 국내답사 스케치

부쩍 따뜻해진 날씨로 봄소풍 분위기가 물씬 풍겼던 이번 국내답사는 4월 28일 전주로 출발하여 이튿날 군산으로 향하는 1박2일 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졸업생 선배님들부터 37기 신입생 원우까지 33명의 원우들이 함께하였고, 행정실 선생님들과 조민호 원장님께서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첫날은 전주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한옥마을 해설사님의 설명과 함께 한옥마을의 주조박물관, 전통한지 명인의집, 완산공원 전망대 등 숨겨진 관광명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전라북도 브랜드 뮤지컬 '홍도'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맛있는 전주 한정식과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막걸리 집에서 선후배, 동기간 이야기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둘째날 군산에서의 첫 일정은 큐레이터님의 해설과 함께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옛 군산세관이었던 호남관세박물관, 일본풍의 건물이 남아있는 군산 근대화거리를 돌아보며 주요 항구인 군산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서해안의 주요 세관으로서의 군산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독특한 지역특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옛 철길을 관광지로 탈바꿈 시킨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로, 옛날교복 체험, 미션사진 촬영 등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1박2일 일정동안 전주와 군산을 돌아보며 지역문화의 특색과 국내관광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선.후배 원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잊지못할 추억도 만들고 왔습니다. 즐거운 일정을 만들어 주신 원우회와 자리를 빛내주신 두분의 행정팀 선생님, 조민호 원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개최

5월 26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원장님이신 조민호 원장님이 학술심포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 학회는 이번이 55차 춘계학술대회로, "Hospitality & Tourism industry의 미래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국내 주요 관광학회에 걸맞게 많은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한진수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장님의 개회사로 문을 연 이번 학회는 HRA KOREA의 지사장인 Linda Lee의 '호텔 건축과 디자인 트랜드 및 미래운영방안'에 대한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호텔일반, 호텔관광, 관광일반, 항공일반, 호텔외식일반을 주제로 총 5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항공일반은 4개의 주제, 그 외 세션은 5개의 논문주제로 총 24개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관광학도이자 관광업계 종사자로서 관심 분야에 대한 학술논문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발표자와 토론을 통해서 관련 주제에 대한 학문적이고 심도있는 고찰 또한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 평화열차 'DMZ Train'

남북철도 경의선, 동해 북부선에 관하여

글/구성 36기 김희재

지난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6시가 지나 발표된 남북 공동선언문, 즉 판문점 선언에는 가슴팍에 불을 지르는 아주 가슴 따뜻한 선언문이 남겨 있었습니다. 바로 경원선 복원, 철도에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저는 남북 철도 연결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남북철도연결

문재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도 개최되자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위기에 몰렸던 북미 정상회담이 본 궤도를 찾았고 남북도 관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고위급회담도 열기로 함에 따라 남북철도 연결도 차질 없이 준비될 전망입니다.

1) 경의선 : 서울~신의주 구간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현대화 등 시설 개량이 필요한 노선입니다.

2) 동해북부선 :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지나는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이나 남측 강릉~제진(104km)이 단절된 상태이다.

◆ DMZ-train 평화열차

단 하나의 특별한 땅, 역사의 아픔을 딛고, 자연의 위대한 생명력으로 다시 태어난 그곳, 평화열차가 함께 역사와 자연, 평화가 공조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평화열차 DMZ 트레인' 들어보셨나요? 서울에서 출발해 비무장지대를 다녀오는 관광열차입니다. 외국인들과 실향민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4월27일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젊은 관광객들의 DMZ 안보관광지방문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방문객이 30% 상승했다고 합니다.

'평화열차 DMZ Train' **열차 왕복 시간표**

	상행 (서울–DMZ)	하행 (DMZ–서울)
도라산 안보관광	10:08 (용산역) 출발 11:43 (도라산역) 도착	16:27 (도라산역) 출발 17:54 (용산역) 도착
연천 드리밍투어	09:27 (서울역) 출발 12:07 (신탄리역) 도착	17:19 (연천역) 출발 19:20 (서울역) 도착
철원 안보관광	09:27 (서울역) 출발 11:44 (백마고지역) 도착	16:06 (백마고지역) 출발 18:35 (서울역) 도착

도라산 안보관광 열차를 타면 승무원이 출입 신청서를 나누어 줍니다. 도라산역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 있기 때문인데 임진강역에 도착하면 모든 승객이 내려 출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반드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기에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신분증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

기사를 쓰면서 남한 북한 두 정상이 쉽게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화면이 생각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한반도를 열차로 투어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3. 포스트 유커

블루오션 13억 무슬림 관광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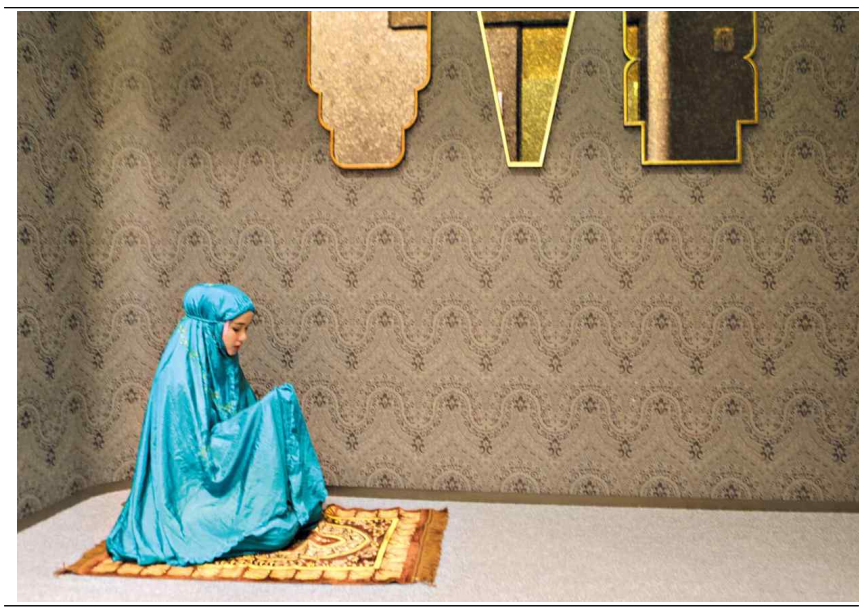
글/구성 36기 주혜림

관광 업계는 국제정세나 정치, 외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보면 한국 관광업계가 관광객의 다변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해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관광 보복으로 방한 중국관광객 수는 급감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서울의 명동, 강남 일대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도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관광 부문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포스트 차이나'의 주역인 아세안(ASEAN) 10개국, 그중에서도 무슬림 관광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사실 그동안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중국 관광객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는데, 다시 한 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많이 줄었지만 동남아·중동 등 기타 지역으로 다변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대신 한류 바람을 타고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무슬림 관광객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무슬림 방한 관광객의 증가수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해 약 86만 명의 무슬림 관광객이 방한했고 이는 전체 외래 관광객의 22.7%를 차지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무슬림은 한류 드라마와 K-POP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등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지역과, 여행소비력이 높지만 방한 관광 인지도가 낮은 중동으로 구분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 세계 17억 명의 무슬림을 잠재력이 높은 관광 자원으로 판단해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을 지정하는 등 무슬림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 레스토랑 확대, 무슬림 친화식가이드북 제작 등을 통해 무슬림 시장을 유치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에 대한 종교적 이해도 부족한 탓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관광객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공된 음식인 '할랄 푸드' 만을 먹어야 하고, 성지 메카를 향해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비행 중 비행기에서도 기도를 할 만큼 중요한 종교 의식인데 기도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곳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무슬림 관광객들은 어디에서 식사를 하고 어디에서 기도를 하며 여행을 할까요?



▲ 서울 롯데백화점 명품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무슬림 여성/
출처: 롯데백화점

'포스트 차이나'에 대한 인식은 한국 관광업계가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관광객 다국화로 '균형 관광'으로 전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커가 돌아오더라도 시장 다변화를 통해 구매력 있는 여러 국가의 관광객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관광업계 안팎에서는 중국인 단체여행객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질 좋은 관광을 추구하는 중국인 VIP 관광객 비중을 늘리고, 동남아·일본·중동 등 관광객 국적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최근에는 20~30대의 중국 개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춘 여행 콘텐츠 개발과 중국 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고급화와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광에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현지 직원이 한국말로 인사를 하거나 우리나라 문화를 존중해서 배려해 준다면 그 여행은 더없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관광객을 우리나라로 유치할 때도 그들의 문화를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조금 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광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래봅니다.

4. 교수님과의 대화 - 정 철 교수님

글/구성 37기 최 별

안녕하세요. 편집부 새로운 식구가 된 37기 최 별 입니다.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신 정 철 교수님을 인터뷰 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주신 정 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1. 교수님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한 학기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데, 이 시점에서 원우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일단 먼저, 한 학기 지금까지 달려오신 모든 원우님들께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한양대 학풍이 다른 대학원에 비해 조금 더 학문적이고, 논문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드리고 싶어요. 교수님들 커리어도 그렇고, 논문을 수업자료로 많이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학문적인 커리어나 지식을 얻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재가 논문이라고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논문이 절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컨텐츠인데 그것을 받아 들인다는게 쉬운 일이 아닌 것 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논문을 해석, 활용하는데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관광학계에서 제일 큰 두 가지 학회가 모두 한양대에서 열렸어요. 그 말은 곧 우리 한양대가 논문발표의 장 이라고 할 수 있으니 논문 작성이나 발표 등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우님들이 힘들겠지만 논문과 좀 더 많이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응원합니다. 파이팅!

2. 교수님께서 관광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시고 공부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미생'의 장그래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무역회사 직원을 꿈꿨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무역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전 세계를 누비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입시가 그렇듯, 학교랑 학과 선택할 때 처음과 다르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알아보던 와중, 제 본연의 목적에 부합 하는 관광이라는 전공을 찾았어요. 운이 좋았죠. 사실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그때 봤었다면, 무역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에요.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거든요.(웃음)

관광학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지금의 제 꿈도 남들과 같이 전 세계를 크루즈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3. 관광학을 공부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공부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아쉬운 건 사람들이 관광학은 재미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학문은 고통과 인내, 그리고 유익함이 있을 뿐이죠.

사실 저는 학계에만 있었기에 업계를 잘 알지 못 하는게 좀 아쉬워요. 회사에 오래 있었다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원우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었을 건데 말이죠.

짧은 제 경험으로 한국의 기업은 너무 거칠더라고요.(웃음)

하지만 또 좋은 점을 생각하자면, 업계에 미련 없이 학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분명 업계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는 항상 성공의 기운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원우들이 너무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과 상황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 다시 대학원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특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제 대답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웃음)

일단 제일 큰 이유는 군대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제 대학원 시절을 말씀드리자면, 유학생활을 쉽지 않게 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밤을 꼬박 새면서 지냈고, 정말 공부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미국사람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하지 못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미국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공부 말고 다른 교류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원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유학생활에 했던 것 딱 두 가지를 꼽으라면 공부와 운동입니다.

두 가지는 원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테니스를 하루에 5시간씩 칠 때도 있었죠.

만약 제가 언어를 더 배워서 갔으면 취미생활 관련한 교류도 더 쉬웠을 건데 그게 두고두고 아쉽네요.

5. 호주 시드니의 숨은 관광지

특별한관광지 헬렌스 버그(helensburgh) 소개

글/구성 33기 서정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관광지는 현지인들도 잘 모른다는 호주 시드니의 특별한 관광지 헬렌스버그(helensburgh) 라는 곳을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시드니에 방문 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헬렌스버그는 시드니 센트럴 역에서 트레인을 타고 약 1시간20분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1. HELENSBURCH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관광지는 헬렌스버그 기찻길입니다. 이 마을에는 시드니와 울릉공 사이를 연결해 주는 폐쇄된 기찻길이 있습니다. 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걷다 보면 'HELENSBURCH' 라는 옛 기찻길이 보입니다. 포토그래퍼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신비로운 곳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낮보다 밤을 더 선호합니다. 밤에 보는 동굴은 으스스 하지만 반딧불이를 더 선명하고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천장에 아름다운 반딧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굴 속은 음침하고 무섭지만 조금만 참고 들어가 보면 우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들어가서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반딧불을 보게 되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만 깨끗한 곳에서만 사는 반딧불들이 잘 보존 되어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라웠습니다. 관광 시 주의 할 점은 동굴 안에는 많은 진흙이 있기 때문에 꼭 등산화 혹은 비닐봉지로 신발을 감싸 묶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 합니다.

2. Sri Venkateswara Temple

두 번째로 안내해 드릴 관광지는 헬렌스버그 마을에 있는 사원입니다. 시드니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힌두교 사원(Sri Venkateswara Temple)으로 특이하고 아름다운 건물과 많은 앵무새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이유는 다양한 힌두교 신들을 모형으로 만날 수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주변이 매우 고요하고 행동이 조심스러워 집니다. 사원 내부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특별한 인도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원을 둘러본 후에 근처에 있는 야생 동물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에도 매우 좋은 곳입니다. 주변이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힐링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이 사원은 헬렌스 버그 역에서 버스로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버스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버스 시간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6. 여름 축제 소개 - 보령머드축제 2018

글/구성 35기 강승희

35기 강승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여러분들은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있나요? “환상적인 머드세상을 체험하게될 보령머드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훈 교수님 ‘축제와 이벤트’에서도 몇 차례 다루어진 축제인데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는데요 해외 관광객에게도 주목받는 보령머드축제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여름축제인 보령머드축제는 2018년7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대천해수욕장 및 시내 일원에서 보령시 주최로 펼쳐집니다. 매년7월에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의 여름축제이며 축제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국적,인종,언어,연령의 구분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기는 체험형 축제입니다.
국내축제 중 외국인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축제이며 전국 축제평가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명예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2016년,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1) 축제의 유래와 역사

보령은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해안지역입니다. 보령에는 136km에 이르는 기다란 해안선을 따라 고운바다 진흙이 펼쳐져 있는데, 성분분석 결과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되고 미네랄, 게르마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미용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양질의 좋은 머드 원료를 발견하였고,머드화장품을 개발하여 이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1회 보령머드축제를 1998년 7월에 개최하였습니다.

2) 행사내용

체험행사에는 머드팩체험, 머드박물관, 머드스파(마사지), 갯벌게임체험, 갯벌미니마라톤대회, 머드슈퍼슬라이드, 대형머드탕, 키드존, 머드몹신, 머드 셀프 마사지 체험등이 있으며 기획전시행사에는 머드화장품, 축제캐릭터 상품전시판매, 보령특산물 판매등이 있고 야간행사에는 보령시민 열린음악회, 보령머드가요제, 개막식과 폐막식이 있습니다.

보령머드축제는 국내 축제로는 유일하게 세계적인 온라인 축제커뮤니티인 에버페스트에서 “세계 최고의 축제300”에 선정되었습니다. 6개분야 6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매일 오전 9시30분 부터 머드 광장에서 열리는 머드 체험존은 대형 에어바운스를 활용하여 온몸에 머드를 만끽할 수 있는 머드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올해는 해변 슬라이드라는 어트랙션이 새롭게 추가돼 머드광장에서 바다로 빠지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령하면 떠오르는 머드축제는 보령시만의 특별한 즐길 거리로 그 위치를 공고히 다지게 되었는데요 보령 관내 주요관광지 시티 투어 운행등 연계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으며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를 타면 교통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유료 체험 존 이용 요금:
주중 - 성인 1만2천원, 청소년 1만원
주말 - 성인 1만4천원, 청소년 1만2천원

7. 항공여행 기내 이용 TIP!

글/구성 36기 정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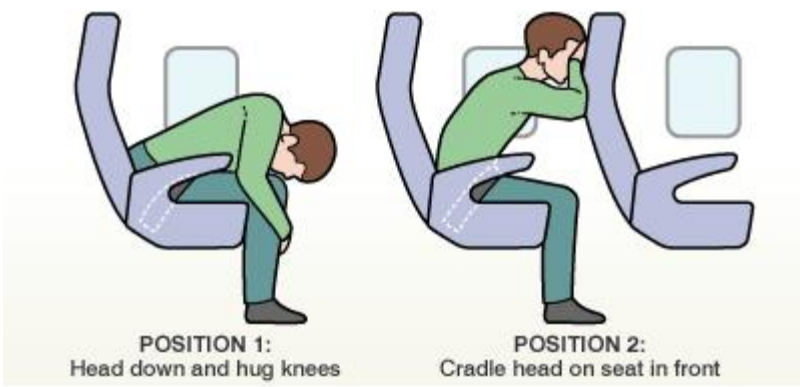
여행의 시작,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하시지요?
가끔 기내에서 승무원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왜 그럴까? 했던 것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왜 창문을 열어달라고 할까요?

이·착륙 시 사고 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비상시 외부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함인데 화재가 났을 경우 승객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하기 위해 창문을 모두 열어달라고 합니다.

2) 왜 등받침을 세워달라고 할까요?

비상상황시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승객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탈출하기 위함입니다.
앞에 승객이 등받침을 뒤로하고 있다면 탈출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충격방지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의자가 뒤로 젖혀지면 승객이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져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되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충격방지자세

3) 왜 귀는 아플까요?

공기 압력이 높은 고도에서 주변 기압보다 높기 때문에 고막이 밖으로 부풀어 귀가 아픈 증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품을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껌이나 캔디를 먹으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왜 술에 빨리 취할까요?

높은 고도에서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뇌로 전달되는 산소량도 부족해져 쉽게 졸리게 된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더 빨리 취하기 때문에 조금식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

높은 고도에서 마시는 술이 지상에서 보다 더 많이 취한다고 하는 선입견은 1930년대 R.A. McFarland 라고 하는 콜럼비아 대학 심리학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고도에 따라 알코올이 조종사에게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수년 간의 연구 끝에 '고도 1만 혹은 12,000 피트에서의 두, 세잔의 카테일은 지상에서 4~5잔의 칵테일이 주는 영향과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입니다.
꼭 기내로만 반입이 가능하며 보조배터리의 경우 용량과 수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꼭 확인 해야합니다.

5) 좌석 선정

비행기 좌석의 위치나 넓이는 여행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편한 좌석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비상구 좌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상구 좌석은 아무에게나 배정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비상구 좌석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이용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신속한 탈출을 위해 승무원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은 이용이 불가하고, 비상탈출시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어야만 착석이 가능합니다.
항공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 특별 기내식 신청하기

많은 항공사들이 기내식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베지테리안이나 종교에 따른 특별 기내식, 어린이 식사, 저염식, 당뇨식, 과일식만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발 24시간 전 항공사 콜센터를 통해 추가비용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구성 36기 박창진

누구나 한 두곳 잊지 못할 여행지가 있기 마련인데요.
항공사 사무장인 제게도 많은 비행지 중 잊지 못 할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 피지 비행에서 생긴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국관원 원우님들께 소개합니다.

2000년 여름 피지행 비행, 피지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 입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원양 어선을 타셨는데, 참치선이 이곳 피지 근처에서 많은 조업을 하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어릴 적 집에 몇 장의 엽서와 희미하게 보이는 야자수와 폭탄 머리 같은 곱습 머리를 하고 천 조각 하나를 휘 말아서 만든 스커트를 입은 피지 현지 사람들과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는 그 사진이 어디서 찍은 건지, 왜 아버지가 그곳에 계신지도 몰랐지만, 마냥 그 풍경이 신기해서 항상 보고 또 봤던 사진과 엽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피지행 비행을 소개하겠습니다. 피지가 197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까지 영국 식민지였던 역사 때문인지, 피지행 비행기에는 리조트로 휴양을 가는 한국인 가족이나 신혼 여행객과 더불어 영국에서부터 연결편으로 연결하여 오는 승객들, 또 아직까지 낙후된 피지의 경제 상황으로 외국에서 일하다 고향을 방문하는 피지인들이 승객의 주를 이룹니다.
이륙 후 식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급히 여승무원이 나를 찾았습니다. 그 비행에 부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는 나에게 보고를 하러 온 것이었는데요. 이코노미 좌석에 앉은 어느 피지 여성이 딸을 데리고 탑승했는데, 자기 남편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승무원의 말만 들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해당 승객을 직접 찾아갔고 그 피지 여성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창가 쪽 두자리에 남편과 앉고 복도 옆에 어린 딸이 앉아있었습니다. 마침 남편은 자리를 비우고 없었고 제가 무슨 일로 남편으로부터 자신과 딸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지 묻자.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말 없이 남편 좌석 앞 하단의 작은 가방의 1000mm 크기의 큰 저가 브랜드의 위스키 한 병을 가르켰습니다. 원래 술주정이 심한 남편이 비행기 연결편을 기다리는 동안 면세점에서 이 술을 구매했고, 탑승 전부터 마신 술로 만취 상태가 되어 자신을 계속 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술병을 꺼내 보니 술은 거의 바닥을 보일 정도로 이미 다 마셔 버린 상태였습니다.
당시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나기 전이라 공항내에 액체류에 대한 반입 금지 등의 조치가 아직 시행되지 않던 시절이라, 가끔 본인 술을 가지고 탑승해서 마시는 승객들로 골치 아픈 일들이 종종 있곤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 중 술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민족이 러시아계 사람들과 영국 국적의 승객들이 많은데, 이 분 또한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뒤에서 인기척이 있어 보니 피지 여인 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60대의 행색이 남루한 백인이 비틀거리며 화장실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고 첫 눈에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승객은 좌석 근처로 오자마자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왜 내 술병에 손을 대냐며 삿대질을 하였습니다. 입사 4년차에 접어든 저는 그런 만취 승객을 처음 응대하는지라 흠칫 두려움 마음도 들었지만, 이 비행기에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두 눈에 힘을 주고 내 두려움은 숨긴 채, 본인이 가져온 술은 기내에서 마실 수 없는 것이 규정이며, 보안상의 이유로 이 술은 압수하겠다 크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술병을 두고 실랑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술을 압수하겠다며 술병을 세게 끌어당기니, 균형 감각을 이미 잃은 승객은 휘청거리며 더 폭력적으로 팔을 휘두르며, 제 유니폼을 잡고 어찌나 세게 잡아당기는지 이미 한쪽 카라는 찢기고 말았습니다. 승객을 때릴 수도 없고, 아무리 승객이 잘못 했더라도 쌍방 폭행의 연출로 이어지면, 승무원도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일이라 우선 들고 있던 술병을 복도에 던지듯이 내려놓고, 저도 제 자켓을 있는 힘껏 말아쥐고 놔주지 않는 그 승객의 양손을 힘껏 잡고 떼어 내려고 하였습니다. 제 엄지 손가락을 세게 듯 잡아당겨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힘에 부쳤는지 균형 감각을 잃은 백인 승객이 나를 뒤로 밀치자 나는 뒤로 넘어지고, 내 위를 그 백인 덮치는 꼴이 되었고. 뒤에 서 있는 여승무원은 놀라 고함을 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순간 이래서 항상 비행기에 남승무원 한명은 태우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있는 힘껏 다시 내 위에 있던 그를 뒤로 밀치고 그 승객의 두 팔을 꽉 잡고 뒤로 승객의 몸통을 돌려, 그 승객의 뒷 팔을 어긋나게 결박하였고. 우선 여승무원에게 빨리 다른 승무원을 불러오라하고, 남성 승객들을 향해 일어나서 승객 제압을 도와 달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복도 양쪽에 앉은 그 어느 승객하나 일어나지 않았으나 복도 끝쪽에서 덩치가 족히 내 두배는 되어 보이는 피지 청년 한명의 도움으로 그 승객을 무사히 제압하였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 피지 청년은 유럽에서 용병신분의 군인으로 근무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더이상 그에게 승무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보안 및 안전 요원인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지 공항에 도착하였고 난동 승객은 기장을 통해 공항에 통보가 되어 기다리고 있던 피지 공항 경찰에 인계하고 비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으로 시작된 피지는 이렇게 다른 추억을 제게 선사하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 피지는 낭만적인 곳입니다. 아버지를 방울방울 추억에 매달아 생각나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